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업계 최초 축산농가용 CCTV 개발

■ '위드솔루션' 김중배 대표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 입주기업인 (주)위드솔루션(대표이사 김중배)은 디지털 보안장비 전문 제조업체다.

지난 2008년 5월 설립해 멀티미디어 처리 기술과 유무선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차량용 영상 블랙박스, 일체형 디지털 비디오 녹화기(DVR·Digital Video Recorder) 등을 개발·보급하는 등 디지털 보안장비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위드솔루션은 업계 최초로 DVR과 CCTV 카메라를 포함한 축산농가용 CCTV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모니터 일체형 DVR과 야간 투시가 가능한 고화질 CCTV 카메라로 구성돼 24시간 축산농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강했으며, 벽걸이형으로 만들어 설치 공간을 최소화했다. 또 발열원인을 고려한 자체 설계 기법으로 물결 팬을 얹어 소음 발생을 줄였다.

이 제품은 지난해 구제역 파동 때 가축병 역학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등 전남 구제역 청정지대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

김중배 사장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감시할 수 있다"며 "편의성과 성능, 가격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드솔루션은 지난해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해 전력선 통신기술 기반의 가정용 보안 장비를 최초로 개발했다.

또 차량용 영상 블랙박스도 인가다. 기존 제품이 단순히 영상을 녹화해 보여준다면 이 제품은 녹화된 영상을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원격 조종도 가능하다.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 주관하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28일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김중배 위드솔루션 대표이사, 이형철 일오삼식품 대표이사, 양봉환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뛰어난 카메라 성능 때문에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제품 연구 개발을 위해 2년간 6억원을 투자했다. '네트워크 블랙박스'라는 특허도 출원했다. 이밖에 디지털 보안 장비 관련 4건의 특허 등록과 17건의 특허 출원했다. 부설연구소인 광IT멀티미디어 기술연구소는 광과 IT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드솔루션은 벤처기업·특허스타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광주테크노파크 10대 유망기업·코트라 보증브랜드·한국무역협회 뉴 엑스포 300 기업에 선정됐다.

성장세도 눈부시다. 미국·캐나다·멕시코·러시아 등 세계 12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올해 수출 200만 달러 등 총 25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 전통떡갈비 연 15억 매출

■ '일오삼식품' 이형철대표

이게 바로 '웰빙 지역 특화 양념육'이다.

또 담양 특산품인 죽순을 가미한 죽순떡갈비, 무항생제 오리를 이용한 오리떡갈비, 돈육에 죽순·오징어·새우 등을 함유한 해물떡갈비 등 차별화된 지역 특화상품도 내놨다. 또 친환경 농산물 원료를 이용해 수작업 양념 갈비류와 우리밀고추장 불고기, 우리밀고추장 양념삼겹살, 우리콩된장 삼겹살 요리를 개발했다.

친환경 유기농 제품인 일오삼식품의 양념육은 초록마을을 시작으로 생활협동조합, 여성인우회,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 등 친환경 매장으로 판매처를 확대해 나갔다. 이들 매장은 전국적으로 400개가 넘는다. 매출액도 해마다 늘어났다. 2004년 2억5000만원, 2006년 6억2000만원, 2008년 12억원, 2009년 14억원, 지난해 15억원으로 늘어났다.

신개념의 노화역제 성분이 뛰어난 청보리를 이용한 분말 제조방법, 청보리 국수제조방법 관련해 특허등록했다. 죽순을 이용한 떡갈비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죽순떡갈비 제조방법과 야콘을 이용한 양념조성물제조의 개발 완료로 특허 준비 중이다. 대통포크의 상표 및 프랜차이즈 상표등록 등 지적 재산권 확보와 자체 소량물 운송 등 온라인유통에도 앞서가고 있다.

일오삼식품은 자회사인 '죽마고우'(http://www.juk.co.kr)'도 운영하고 있다. 죽마고우에서 생산되고 있는 기능성 천연화장품인 각종 오일과 보습제, 베이비크림 등 25가지의 제품은 고품질의 코스메타컬처블드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형철 대표이사는 "일오삼식품과 죽마고우를 향후 5년 내에 100억 매출을 상회하는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터미널 분리매각 이견

대한통운 매각 일정 차질

아시아나·대우건설 맞서

대한통운 매각 일정이 자회사인 금호터미널 분리 매각 문제로 차질을 빚게 됐다.

대한통운 매각주관사 고위 관계자는 28일 "대한통운 대주주인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방식에 대한 견해차로 매각일정이 예정보다 늦춰지게 됐다"고 밝혔다.

매각주관사들은 당초 다음달 13일까지 최종입찰을 받고 같은달 1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7일 양해각서(MOU)를 교환할 예정이었다. 6월30일까지는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

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대한통운 매각대상 지분 37.6% 가운데 각각 18.98%와 18.62%를 보유한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이 매각방식에 이견을 보이면서 일정이 꼬였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터미널, 아시아나공항개발, 아스공항 등 대한통운 자회사 3곳을 되사위해 분리매각을 원하고 있다. 반면 대우건설은 금호터미널만은 대한통운과 쪼개 매각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매각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로 지난 18일로 예정됐던 본임할 안내서 발송도 미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은행은 28일 오전 광주신앙파크호텔에서 광운리더스클럽 정기총회를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광운리더스클럽 정총 김홍균 회장 선임

'행복론' 주제 강연회도

KJB광주은행은 28일 오전 광주신앙파크호텔에서 지역대표 중소기업 CEO모임인 광운리더스클럽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홍균 남산석유(주) 신임 중앙회장을 비롯한 부회장과 임원 선임을 인준했으며 오종남 서울대 교수를 초빙, '행복론'을 주제로 강연회도 가졌다.

김홍균 신임 광운리더스클럽 회장은 "광주·전남지역이 취약한 경제구

조를 갖고 있으나 리더스클럽 회원사 간 상생의 가치 아래 광주은행과 함께 지역사회의 현안에 더욱 애정을 갖고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참여하자"고 말했다.

한편 회원사에 대한 화합과 소속감 고취를 위해 500여명의 전 회원에 대한 위촉과 수여와 함께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다짐하고 지역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리더스클럽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5월2일엔 오이 드세요"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와 오이 주산단지 평동농협(조합장 남하룡)은 28일 오이데이(5월2일)를 앞두고 광주지하철 상무역 농협 직거래장터에서 '오이 무료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빅마트’ 결국 공개 매각

광주지법 결정, 주월점·매곡점·화순점 ... 롯데슈퍼 등서 관심

광주의 대표적 향토 유통업체였던 '빅마트'가 결국 공개 매각된다.

28일 광주지방법원 회생 파산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전남 빅마트의 공개매각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빅마트는 지난해 7월 경영난

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10개월여 만에 법원은 빅마트 주월점과 매곡점, 화순점을 공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빅마트는 5월 초순부터 자산매각 방식의 공개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1995년 수도권 이남 최초의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문을 연 빅마트는 진월점을 처음 오픈한 뒤 한때 광주와 전남·북에 16개 점포를 두고 국내 대형마트 순위 15위까지 오르는 등 승승장구하며 향토 유통업체로서

성공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재벌그룹 유통업체의 지역 시장 공략으로 매출이 떨어지며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 2007년 롯데쇼핑에 주월점, 매곡점, 화순점 등 3개 점포를 제외한 13개 매장을 매각했다.

이어 계속된 경영난에 지난 2009년 12월 나머지 3개 매장도 롯데쇼핑에 임대를 내줬고, 6개월 뒤 법정관리 신청 직후 최종 부도 처리됐다.

빅마트가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현재 빅마트 매장에서 임대업을 하는 롯데슈퍼를 비롯, 홈플러스 등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제정과 지자체 조례가 잇따라 만들어진 가운데 '무형입성'이 가능한 빅마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업들 "5월 자금사정 호전 될 것"

지역경제 소비 주춤·성장은 지속

한은광주전남본부 조사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4월에 이어 5월 자금사정이 호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매출액 20억원 이상 533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11년 4월 광주·전남 지역 기업 자금사정 조사 결과'에 따라

면 광주·전남지역 기업 자금사정 BSI가 91로 지난해 보다 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95로 지난해 보다 9P, 비제조업은 87로 2P 각각 상승했다. 특히 5월 기업 자금사정 전망 BSI는 95로 전달보다 3P 상승했다. 제조업은 102로 전달대비 4P, 비제조업은 88로 2P 각각 상승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근 광주·전남 지역 경제는 소비는 다소 주춤했으나 제조업 생산과 수출증가로 성장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의 광주·전남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2월중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트레이러와 고무·플라스틱 등의 효호로 증가폭이 확대돼 16.4%

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자 물가는 4.4%가 증가해 전달과 비슷한 수준의 오름세를 유지했고,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도 확대됐다. 2월중 건축착공 면적은 주거용과 공업용 부진으로 감소로 전환(-12.2%)됐으며 건축허가 면적은 10.9%로 전달(8.6%)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최재호기자 lion@

35년연속 합격자수1위

상위권대학편입
전남대편입전문강좌
영어.수학.TEPS

그동안 14만명 합격자 배출! 2011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원치않는 대학 재수보단 편입으로 인생역전!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뒤 062)227-8088 개강 매월1일 [kimyoung.co.kr]